

소진공 본사, 대전 內 이전에... 市 “의논 없었다” 몽니

(중구·유성구)

소진공 “빗물 새는 등 건물 낙후 직원 투표서 80% 이상 이전 찬성” “세종 중기부와 거리 절반 단축 연간 보증금·임차비도 확 줄어”

대전시 “쉬쉬하고 논의도 안해 총선 이후 갑작스런 이전에 당황”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뉴스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사를 같은 대전시 내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대전광역시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이 워낙 낡고 시설이 노후화돼 열악한 근무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을 놓고 소진공을 마치 시 산하기관인양 대하면서다.

마침 소진공은 대전시장 출신인 박성호 이사장이 맡고 있다.

21일 대전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대전시 권경민 경제과학국장은 지난 1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진공이 이전에 대해 쉬쉬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시와 논의했으면 좋았

족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다만 대전지역을 지원하는 대전충청 지역본부와 대전남부센터는 기존과 같이 중구에 남게 된다.

그러면서 소진공은 “직원들이 바라는 가장 큰 복지가 ‘청사 이전’이었다”면서 “사육을 대전시 안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오래전부터 검토해 왔으며 근무환경 개선이 직원들의 처우를 위한 최우선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소진공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물 이전에 대해 내부 투표를 실시한 결과 80% 이상이 사육 이전을 찬성했다.

현재 소진공이 있는 건물은 장마철마다 물난리를 겪는다. 한 소진공 직원은 장마철에 건물 내부로 쏟아지는 빗물이 계단으로 넘치는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노후화돼 수시로 막히는 화장실도 골칫거리였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소상공인 지원업무가 크게 늘어나며 구성원 숫자도 많아져 사무실도 협소하다.

6월에 해당 장소로 이전하게 되면 소진공 임직원들의 업무면적은 5.2평에서

6.2평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주무부처인 중기부(세종시)와의 거리는 기존의 33km에서 14km로 가까워지고 출장시간도 왕복 12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돼 업무 효율성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모두 세종시에 있다. 이에 따라 소진공 역시 중장기적으로 아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같은 지역내 이전을 놓고도 마음이 불편한 대전시의 경우 향후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시화될 경우 소진공을 빼가지 않기 위해 총력도 불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진공은 이번 이전을 통해 경비가 줄어들어 이를 직원 복지 향상에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보증금이 연간 10억2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연간 임차관리비도 17억50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무료주차도 54면에서 70면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회의실, 직원 휴게시설 등 업무 및 편의시설도 확충이 가능해 직원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직원 업무 만족

도와 부서 간 소통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진공은 중기부 산하 11개 기관 중 연봉이 가장 낮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소진공 평균 연봉은 4950만8000원이다. 이는 가장 높은 기술보증기금(9271만4000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 임직원들은 우리나라 730만 소상공인과 1800여 곳 전통시장·상점가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사육이전으로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효율 확보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는 물론, 복지증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기관인 소진공의 업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소진공 직원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경비가 줄어보겠다고 같은 대전시내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대전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19개 법원과 ‘기술분쟁조정’ 협약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 속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술분쟁 해결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기술분쟁중재위)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끝냈다.

기술분쟁중재위는 지난 2015년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 왔다.

이후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함

으로써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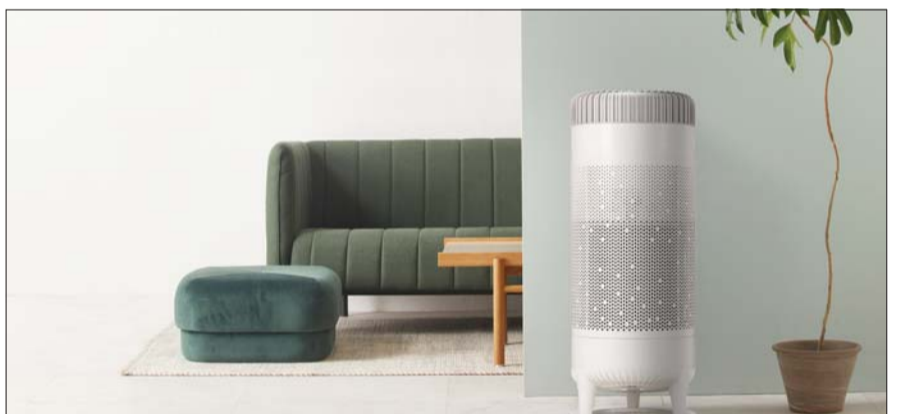
기술분쟁중재위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기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

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기술분쟁중재위에 배정할 수 있다. 이후 위원회는 해상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유승남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뉴히어로2로 봄철 황사 걱정 덜어요”

청호나이스 ‘뉴히어로2’ 출시
활성탄 등 유해가스 정화능력 향상

청호나이스가 출시한 공기청정기 ‘뉴히어로2’ (사진)가 듀얼 플러스 필터를 장착,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로부터 가족 건강을 톡톡히 지키고 있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지름의 7분의 1정도인 10μm(10μm는 0.001cm)이하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작다. 또 초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2.5μm 이하로 우리가 숨을 쉴 때 폐포 끝까지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

미세먼지에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질산염, 황산염 등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각종 염증과 천식 등은 물론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악화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봄철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3~5월에 먼지 농도가 특히 높지만 최근에는 계절과 무관하게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청호나이스가 ‘뉴히어로2’에 적용한

듀얼 플러스 필터는 여재 사이에 고성능 입상 활성탄을 포함해 기존 자사 필터 대비 1.3배 유해가스 정화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집진과 탈취 필터가 하나로 결합된 일체형 필터로 교체와 관리도 쉽다.

특히, ‘뉴히어로2’는 부드러운 곡선라인과 고급스러운 오프 화이트 색상이며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공기역학 설계와 360° 전방향에서 흡입이 가능한 원통형 구조로, 회전무빙으로 세 방향(상·좌·우)으로 강력하고 빠른 청정바람을 생성한다.

‘뉴히어로2’는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바닥에서 약 10cm 띄워져 있는 하부흡입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바닥에서 생활하는 아이의 공간 케어와 함께 반려동물의 털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자동(AUTO) 모드를 선택하면 레이저 먼지·가스 센서가 극초미세먼지(1.0μm 이하)까지 감지한 후 오염도에 따라 바람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면역력이 떨어진 노약자의 경우 각종 유해 물질이 포함된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뉴히어로2’ 공기청정기는 극초미세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어 안심하고 가족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맞춤형 공간케어 상품 선보여

HDC랩스와 전략적 업무협약

코웨이가 HDC랩스와 손잡고 맞춤형 공간 케어 상품을 선보인다. 21일 코웨이에 따르면 HDC랩스는 건물관리 솔루션과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AIoT 기업으로 공간 케어 브랜드인 베스틴케어를 중심으로 공간방역·살균, 위생 장비 렌탈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략적 업무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휴 상품 개발로 영업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코웨이 환경가전 제품과 HDC랩스의 베스틴케어 방제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간 케어 상품을 개발해 내 놓을 계획이다. 특히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Office care(가



코웨이 박준현 법인사업실장(왼쪽)이 HDC랩스 한상현 리얼티본부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침)’, ‘Bath care(가침)’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상품을 패키지와 하고 맞춤형 공간 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웨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피스 빌딩 및 건물 운영 플랫폼 시장의 신규 판로를 확보하고 B2B(기업간 거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리바트 소파 신제품 2종 출시

현대리바트가 리클라이너 소파 ‘캐슈넛’ 과 모듈형 소파 ‘그레블’ 등 소파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21일 현대리바트에 따르면 캐슈넛은 등받이부터 팔걸이, 좌방석 등이 둥근 형태의 ‘라운드 애브리웨어’ 디자인을 적용한 리클라이너 소파다. 밀도가 높으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의 부클레 원단을 사용해 편안한 착석감이 특징이며, 생활 발수 기능을 갖춰 관리가 쉽다.

리클라이너의 핵심 부품인 리클라이너 모터와 스위치 등 내부 리클라이닝 하드웨어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 받은 독일 OKIN의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리클라이너 기능을 작동할 때 별도의 여유공간이 필요없는 ‘제로월’ 기능을 적용해 소파를 벽에 밀착시켜 배치할 수 있어 공간 효율성이 높다. /김승호 기자